

# ‘일상 속 교통수단으로’... 광주, 자전거 정책 활성화 모색

시, 제 6차 대자보 도시 시민포럼 열어  
조례정비·특전 등 실천과제 집중 논의

광주시는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함께 22일 광주에너지파크 해담마루에서 자전거 교통정책 활성화 전략을 모색했다.

두 기관은 이날 ‘제6차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광주 시민포럼’을 열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전거 교통정책을 통한 교통 분담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윤재웅 (재)송파나눔 자전거시민포럼 공동대표는 ‘자전거 교통정책 활성화 전략과 지역 해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윤 대표는 지속할 수 있는 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전거를 지목하면서 자전거 수단 분담률 제고를 위해 시민참여형 자전거 운동 확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명구 전국생태교통네트워크 위원장은 7년간 전국 단위로 추진한 자전거

출퇴근 쉼터지의 성과와 과제를 소개했다. 이를 통해 레저를 넘어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됐다고 공유했다.

주제 발표에 이후에는 조진상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좌장을 맡아 최규식 산월초 교감, 나부기 바이크런 대표, 김광훈 에너지파크 해담마루 센터장, 장화선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대표가 참여해 ‘광주 자전거 교통정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집 앞부터 목적지까지 끊김 없이 안전하게 연결되는 자전거 기반시설 조성,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조례와 제도 정비, 누구나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의무교육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자전거 이용 확대를 위한 특전(인센티브)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윤미라 광주전력추진단장은 “자전거 정



22일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에너지파크 해담마루에서 열린 ‘제6차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광주 시민포럼’에 참석자들이 퍼포먼스를 펼치며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

책은 광주시가 자동차 중심 도시에서 사람을 위한 도시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핵심 요소”라며 “시민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안

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대·자·보 도시 광주 시민포럼’은 대중교통·자전거·보행을 주제로 전문가

와 시민이 함께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다. 지난해부터 보행환경·자전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 차없는 거리, 교통정책에서 시민참여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북구, 내년 본예산 1조651억  
민생 회복·안전환경 등 방점

광주 북구가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7년 연속 예산 1조원 시대를 이어가게 됐다.

북구는 올해 본예산보다 235억원(2.25%) 늘어난 1조651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8일 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26년도 본예산은 일반회계 1조569억원, 특별회계 82억원규모다.

이번 예산안은 불필요한 경감경비를 절감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주민 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부끄러니 발행 8억600만원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조성 6억원 △소상공인 자금 지원 5억8800만원 등을 편성했다.

전체 예산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에는 △기초연금 1740억원 △생계급여 1136억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566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453억원 등을 편성해 돌봄과 자립 기반 강화에 나섰다. 임영진 기자 looks@

## 광주시의회, 7년 연속 우수조례 수상 ‘패거’

시 특위 출범 등 정책 실행력 강화...현장 중심 의정활동도

광주시의회(의장 신수정·사진)는 올해 전국 최다 7년 연속 우수조례 수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동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거뒀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사상 첫 여성 의장 체제 후반기 2년 차를 맞은 2025년을 결산하며 이같이 자평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전국 243개 의회 중 가장 많은 횟수인 7년 연속 우수조례를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광주시의회는 중앙 협력 플랫폼 구축과 AI 특위 출범으로 정책 실행력을 강화했다.

광주시의회는 기존의 형식적인 틀을 뛰어넘어 의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만나는 민생 현장 방문 간담회를 활발히 추진, 총장로 중심 상업지역

과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골목상권 상인, 도시철도 2호선 인근 주민 등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했다.

올 한해 동안 총 10회, 11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며 345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생활 밀착형 입법 성과를 거뒀다. 이 가운데 조례안은 202건으로, 69.3%에 해당하는 140건을 의원이 직접 발의했다.

또한 광주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 무감사에서 전년 대비 9.6% 증가한 총 1026건의 시정·개선 사항을 요구하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광주시의회는 지역 현안과 주요 정책이슈를 대상으로 시민여론조사 4회와 정책연구용역 6건을 수행하며 보다 객



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했다.

외부 전문가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네트워크 15회, 정책토론회 50회를 개최해 다양한 시각과 전문 지식을 의정활동에 반영했다.

이외에도 누리집 및 SNS 채널 등을 통해 365일 24시간 시민과 만나면서 진정서 16건, 인터넷 민원 100건 등 시민 불편 사항 해소에도 주력했다.

신수정 의장 “올해는 광주시의회가 탁월한 입법 역량을 인정받고, 재정 분석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며 “내년에는 그동안 쌓은 의정 성과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발전하는 시의회가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광주·전남 목소리 당정에 직통으로 연결”

이건태 의원, 민주당 최고위 보궐선거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견태 의원(경기 부천병·사진)이 22일 광주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전남의 목소리를 당과 국정에 직통으로 연결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그는 “민주당의 뿌리인 광주·전남 시도민들께 출마를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 도리다”며 “유일한 광주·전남 출신 선출직 최고위원 후보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은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작동해온 가장 강력한 역사적 기억”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멈춘 없는 개혁의 완성과 성공을 뒷받침하고자 최고위원으로 나서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최고위원회 보궐선거를 ‘천명 대 천청’ 후보 간 경쟁 구도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천명과 천청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어느 후보가 대우를 더 잘



지원할 수 있느냐를 가리는 선거”고 일축했다.

이 후보는 “당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는 1인 1표제가 당연하지만, 중요한 당내 의사결정을 위한 속의를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전당원 투표 전 30일 속의 기간과 공개토론회 의무화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광주·전남 지역 공약과 관련해서는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고위원으로서 책임지겠다”며 “전남을 농생명·AI·신재생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남이 낳고 광주가 키운 정치인으로서 민주당 최고위원이 돼 광주·전남 발전과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반드시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내년 6·3지방선거 입지자 출판기념회

## “변화 체감하는 ‘효능감 있는 정치’ 구현”

명창환 전 전남도행정부지사

내년 6·3지방선거 여수시장 출마를 선언한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출판기념회를 열고 여수의 위기 극복과 도약 구상을 공식화했다.

명 전 부지사는 지난 21일 여수시민회관에서 저서 ‘여수, 꿈을 그리다’ 출판기념회를 열어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가 맞물린 여수의 현실을 진단하고, 구조적 전환을 통한 재도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여수는 단기 처방으로 버틸 수 있는 국면이 아니다”며 “시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정치’로 도시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행사는 명 전 부지사의 30년 공직 이력과 여수와의 인연,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여수시 직소민원실장과 자원봉사센터 소장 등을 거치며 현장에서 민원을 다뤘던 경험, 고시 출신으로 이례적으로 주상동장을 자원으로 주민 삶의 최전선에 섰던 일화가 소개됐다. 행사 도중 어머니 흥신에 여사가 전한 덕담에 명 전 부지사가 잠시 말을 잊지 못하



명창환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21일 여수시민회관에서 저서 ‘여수, 꿈을 그리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는 장면도 연출됐다.

그는 여수의 위기를 수치로 설명했다. 여수국가산단 매출 급감과 주요 공장 가동률 하락, 최근 2년간 7000여 개에 달하는 일자리 감소를 언급하며 “지역 상권 역시 붕괴 직전”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막연한 구호가 아니라 산업·일자

라·정주 여건을 함께 묶는 구체적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한숙경 전남도의원

내년 6·3지방선거에서 순천시장 도전에 공식화한 한숙경 전남도위원이 자신의 정치 여정을 담은 책을 통해 시민들과 직접 마주했다.

한 도의원은 지난 20일 국립순천대학교 도서관에서 저서 ‘동네언니 정치하러 갑니다’ 출판기념회를 열고, 생활 정치에 대한 철학과 향후 비전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치권과 교육계, 여성·사회단체 관계자, 지역 시민 등 10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행사는 개그맨 노정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출간 배경과 책의 핵심 메시지를 소개하는 시간에 이어 오케스트라 공연, 참석자와의 소통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됐다. 단순한 출판기념회 형식을 넘어, 정치와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꾸며졌다는 평가다.

책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개인의 삶의 태도와, 주민들의 일상에서 출발한 문제의식을 정책으로 풀어낸 과정이 담겼다.



한숙경 도의원은 지난 20일 국립순천대학교 도서관에서 저서 ‘동네언니 정치하러 갑니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한숙경 도의원은 그간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정치의 역할을 재정의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도의원은 “삶의 현장에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정치를 해왔다”며 “이번 출간이 더 많은 주민들과 마음을 나누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동네 언니처럼 주민의 삶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정치를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조승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광주 서구청장 출마를 준비 중인 조승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저서 ‘9급 공무원 출신 구청장을 꿈꾼다’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행사에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민형배·조인철·정진욱·안도걸 국회의원, 지역민과 지지자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조 부의장은 “전남 화순의 가난한 소작농의 아들로 태어나 9급 말단 서기보로 공직을 시작해 성실함과 우직함으로 서구청장 4개 국장을 역임했다”며 “배경도, 학벌도 없는 흠수저였지만 실력 하나로 인정받았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서구 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서구는 제 청춘과 인생을 모두 쏟아 부은 삶의 터전”이라며 “40년 행정 전문가의 역량을 모두 쏟아 부어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살자는 상생하는 서구, 광주를 견인하는 영광스런 서구를 반드시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승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저서 ‘9급 공무원 출신 구청장을 꿈꾼다’의 출판기념회를 가졌다.

행사에서는 기존의 딱딱한 출판기념회 틀을 깨고 ‘행복 서구’, ‘희망 서구’, ‘청렴 서구’를 염원하는 ‘3색 풍선’ 및 ‘손피켓’ 퍼포먼스가 펼쳐지기도 했다.

한편, 조승환 부의장은 광주 서구청 비서실장, 기획실장, 의회사무국장, 경제문화국장, 총무국장, 복지일자리국장 등을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을 맡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